

“광주일보 기사 보고 1982년 첫 후원 그 때부터 ‘기부 인생’ 시작됐습니다”

광주일보 통해 34년째 기부 실천하는 독자 문영수씨

“오메 어찌까...” 깊은 밤에도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밥은 먹었을까, 출지는 않을까.’ 오늘 아침 신문에서 봤던 10남매가 뇌리를 떠나질 않는다.

담양의 문영수(75) 법무사는 지난 4일 아침 광주일보 6면에 실린 기사를 보고 잠을 설쳤다. 10남매를 둔 40대 부부가 빚 때문에 자녀 7명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10명이 함께 잠들기조차 힘든 5명 남짓 단칸방에서 생활했을 아이들 걱정이 앞섰다.

“어려운 아이들의 사연을 접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굶지는 않았을까, 아프지는 않았을까.”

문 법무사는 다음날 아침 10남매를 위해 써달라며 조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00만원을 전달했다. 매달 10만원의 정기후원도 약속했다. 광주일보를 40여년 구독해온 그는 지면에 실린 ‘어려운 아이들’ 기사를 보는 날이면 적은 후원금이라도 내놓아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한다.

담양군 수북면 가난한 농가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린 동생들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다. 중·고등학교에 다

딱한 사연 접하면 선뜻 기부

‘미취학 10남매’ 정기 후원도

“일하는 동안 이웃과 나눌 것”

니면서도 새벽에는 우유, 신문배달을 했다. “신문 배달하다가 개한테 물린 적도 많았다”고 웃으며 말하지만 그때를 떠올리면 눈가부터 촉촉해진다.

문 법무사는 신문을 배달하던 1960년대 당시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와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구독하고 있다.

어려움을 딛고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의 첫 월급은 2만 5000원. 동생들 뒷바라지 하기에도 벅했다. 하지만, 동전 한 닢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저금통에 모았다.

어렵사리 돈을 모았지만, 지난 1982년 12월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는 담양중학교 1학년 강대식(13)군이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기사를 보고 선뜻 광주일보를 통해 3만원을 후원했다. 강군은 은혜를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왔다.



문영수 법무사가 보관해온 광주일보 기사와 도움을 받은 이들이 보내온 편지들.

“문영수 아저씨, 이 추운 겨울 날씨가 저에게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아저씨와 하느님께 맹세합니다. 바르게 열심히 공부하고 튼튼하게 자라 어두운 곳 등불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강대식 올림)”

그는 두 달 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이재순(13)양에게 3만원을 후원했다. 같은 해 서울대 법대 합격생 김인중(19)군, 이듬해 소아마비를 딛고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최인규(20)씨가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입학 포기할 처지에 놓였다는 기사를 보고 각각 3만원과 5만원을 들고 광주일보를 찾았다.

도움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문 법무사

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3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편지와 관련 기사들을 보관해두고 있다.

“저도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도 많았습니다. 마치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문 법무사는 지난해도 카리브해 최대 빈국 아이티에서 ‘나 홀로’ 광주U대회에 참가한 태권도 대표 알티모르(광주일보 2015년 7월 6일자 1면) 선수에게 1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조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1983년 시작된 정기후원금은 총 950만원이 넘어섰다. 2006년부터 모교 담양 수북초에 매년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 2009년부터 담양 장학회에 매년 100만원을 내놓는 등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선두역할을 하고 있다.

“부모님도 늘 어려운 형편에도 누군가를 도우셨어요. 그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도와야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이웃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문영수 법무사가 31년 전 광주일보에 실렸던 최인규씨 기사와 최씨가 감사하며 보내온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금 정부수매 대가 수취 염업조합 전 이사장 구속

2만5000가마 공급 알선

수매가 부풀려 차액 편취도

천일염 도매업자에게 돈을 받고 정부수매를 도와준 대한염업조합 전 이사장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강)는 정부수매 자격이 없는 소금도매업자에게 수매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부정청사후 수뢰)와 수매가 등

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염업조합 전 이사장 제갈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조합 전 감사관리팀장 천모씨와 제갈씨에게 뇌물을 준 소금도매업자 전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업무상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갈씨는 2015년 11월께 도매업자 전씨가 소금 2만5000가마를 정부수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

로 전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수매는 생산자인 염전농가에 계간 자격이 있고, 연간 정부수매 물량이 22만가마인 것을 감안하면 무자격자인 도매업자에게 이 중 10%이상 넘긴 셈이다.

제갈씨는 또 같은 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수매를 끼리는 염전농가에게 수매물량을 받아 비싼 가격의 정부수매(1가마당 5800원)를 해주고 농가에게는 일반수매가(3900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차액 3000

만원을, 농기계 구매 과정에서 수량·가격을 부풀려 차액 19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1억2056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 감사관리팀장이었던 천씨는 제갈씨와 공모해 정부수매가와 일반수매가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4900만원을 편취했고, 도매업자 전씨는 소금을 정부수매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제갈씨에게 건넨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제갈씨는 지난달 실시된 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위해

장병완 의원, 재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19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을 위한 재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는 국민의당 전정배 공동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박지원·김동철·유성열·임내현·김관영·황주홍·권은희 의원, 더민주 강기정·박해자 의원 등 호남 의원들이 주도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구체적 근거 없이 국민통합을 지해한다는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독단적 태도를 바꾸고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13년 6월에도 기념곡 지정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보존처는 지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반발한 5·18 행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이 공식 기념식 참석을 거부하면서 최근 몇 년간 5·18 기념식은 민·관 주도 행사로 나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이번 5·18행사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묵묵히 부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영그룹 수십억 세금 포탈 혐의 수사

국세청, 검찰 고발 따라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부영그룹이 수십억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세무당국의 조사에서 드러나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검찰과 세무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세청으로부터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과 부영주택 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이날 3차정점사 산하에 해당

했다. 이 사건은 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미 착수한 수사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특수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부영주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부영주택이 법인세 수납의무를 포탈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세무당국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연향뉴스

무등산 중머리재 훼손지 복원 본격화

7월까지 심층토양 640t 복토

고유식물 옮겨심고 탐방로 정비

해마다 300만 탐방객들의 발길에 훼손된 무등산 중머리재가 복원된다. 쓸린 흙은 돋우고 사라진 풀과 나무는 다시 심는다. 복원 사업에는 시민들이 함께 한다. 복토에 쓰일 흙을 봉투에 담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중머리재까지 옮기는 것이다. 19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작된 중머리재 식생(植生) 복원 및 탐방로 정비사업이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무등산 중머리재 일원은 증심사, 증봉, 세인봉, 장봉재를 연결하는 코스로 해마다 300만명 이상의 탐방객이 집중돼 토양 침식과 식생훼손이 가속화됐다.

이는 무등산공원사무소가 중머리재 훼손지(3800㎡) 복원을 위해 주요 사업으로 정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중머리재 복원 및 탐방로 정비 사업은 크게 복토작업과 식생복원, 시설정비로 나뉜다. 공단은 우선 광주지역 아파트 개발지에서 확보한 심층토양 640t을 중머리재 일원에 옮겨 돋우는 작업을 한다. 해발 608m인 중머리재에 토양 수백t을 옮기는 작업에는 헬기가 투입됐다.

복토에 쓰일 토양은 사전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지 검사를 마쳤고, 지표에서 1



중머리재 복원 조감도

m 이상 들어간 곳에서 확보한 탓에 식물의 씨앗이 답질 여지도 없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이 토양 위에 짚레 등 무등산 고유 식물을 옮겨 심을 계획이다.

무등산공원사무소는 개활지처럼 펼쳐진 중머리재 일원의 식생복원이 간섭받지 않도록 식물성분 친환경 매트를 얹힌 휴식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전광테크와 의자, 등산 표지판, 화장실도 마련된다. 중머리재 주변 탐방로는 최소 범위로 줄이고 울타리를 설치해 주변 식생훼손을 예방하기로 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중머리재 복원사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했다. 무등산 증심탐방지원센터 앞에서 복원사업에 쓰일 흙을 500g씩 담은 봉투 600개를 쌓아두고 산행에 나선 시민들이 원할 경우 나눠주고 직접 중머리재 복원 현장에 뿌리는 방식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전남 지자체 등 14곳 종합감사

인사 부정·규정 위반 165건 적발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인사부정과 부당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9일 북구·남구 등 자치구 2곳, 시립민속박물관·김치타운 등 사업소 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3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45억1600만원을 추징하거나 회수하고, 남구와 북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 8명은 훈계 등 인사 처분했다.

남구는 시정과 주의 등 58건이 적발됐으며 41억6000여만원을 회수 조치당했다. 효천2지구 보금자리 주택사업 과정에서 시에 반환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을 무시한 제멋대로 인사가 도를 넘었다. 결원을 늘려 승진 인원을 맡게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경징계하는 등 제식구 감사

기도 여전했다.

전남도는 이날 기초단체 6곳에 대한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군단 5건의 부당한 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나주시와 완도군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위원장 부단체장)가 하게 돼 있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인사부서에서 한 뒤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확정할 것처럼 회의서류 등을 작성했다. 또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확정된 공무원 순위와 평가점수를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무안군은 5급으로 승진 의결된 공무원을 승진임용순위명부 순서에 따라 임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후순위 공무원을 승진시키기도 했다. 목포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4명을 정원 직렬과 다르게 보직에 임용했다. 일부 지자체는 근속 승진 예정인원을 과다하게 산정해 승진자수를 늘렸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6개 시·군에 해당 직원의 주의·징계·시정 등을 요구했다. /윤영석기자 penfoot@kwangju.co.kr /현철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구청에 본인 묘목 판매 물의 부구청장 사의 표명

광주시, 감사 착수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면서 자신 소유의 나무를 구청에 납품한(광주일보 4월19일자 6면) 홍화성 광주 동구 부구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9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홍 부구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동구 관계자는 “홍 부구청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관련 사안들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회의를 통해 직위해제하는 방

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도 홍 부구청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언론에 보도된 홍 부구청장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홍 부구청장이 본인 소유의 묘목을 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와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동구 공무원노조는 김성한 동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산에서 발견한 늑든 박격포탄 직접 들고와 신고 ‘화들짝’



○…광주의 한 경찰서 지구대로 40대 주민이 “산에서 고사리 깨던 중 발견했다”며 늑든 박격포탄을 직접 두 팔로 들고 와 신고하면서 경찰과 군당국이 화들짝.

○…19일 광주서부경찰 등에 따르면 주민 성모(53)씨가 지난 18일 밤 8시40분께 금호지구대로 높이 삼하계 슨 81mm 박격포탄을 가져와서는 “이를 전(16일)

서구 용두동 송학산 자락에서 발견해 집에 보관하다 아무래도 수상해 가져왔다고 신고했다는 것.

○…포탄을 넘겨받은 군당국은 “한국전쟁부터 1970년대까지 쓰인 군용 박격포탄으로 위험성은 없다. 포탄을 발견하면 즉각 군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확한 출처와 유실 배경은 포탄이 너무 녹슬어 알 수 없다”고 고르시. /김형호기자 khh@